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2012년 3월

선교편지 제 41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 민다나오의 대중 교통 수단으로는 필리핀 특유의 '지프니' 외에 오토바이를 여러 사람이 탈수 있도록 개조한 '트라이시클'이 있습니다. 각각의 노선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지만, 배차 시간이라든지 정거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올라 타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선을 따라 가다가 승객이 없으면, 방향을 바꾸어 돌아 가기도 하는 그야말로 '운전사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중 교통 수단입니다. 주 도로 외에 대부분의 좁은 도로들로 이루어진 이곳은, 이러한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없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감당하지 못하는 험악한 길들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새로운 교통 수단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하발하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고, 오토바이의 뒷 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단순한 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곳 생활에 익숙치 못한 부분이 많은 저희들에게는 이 '하발하발'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서 헬멧도 없이 험악한 길을 질주 할 때면 '순교'라는 단어가 매우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위험한 교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 대의 오토바이에 저와 제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이 함께 탈 때는 거의 묘기 대회 수준의 좌석 배치와 그에 적합한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대의 오토바이에 5명이 함께 타고 이동 한 것이 지금까지의 최다 인원 기록인데, 가능하면 자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교통 수단입니다.

저희가 학원 사역을 하고 있는 디고스내의 '발라박'이라는 지역에 오랜동안 기다렸던 새로운 고등학교가 작년말에 설립 되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새롭게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원 사역을 하고 있는 마띠 고등학교보다도 학교 사정이 더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형편도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왔었습니다. 때때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발라박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띠학교와 같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면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부탁을 받아 왔었지만, 현재의 저희 형편으로는 새로운 사역을 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 발라박 학교 방문을 계속 미루어 왔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제한된 상황과 더불어 발라박 고등학교로 가는 교통편이 용이 하지 않다는 것을 들어 왔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라박 고등학교는 디고스 내의 주 도로에서 약 5 mile 정도 떨어진,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우 완만한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비 포장 도로인 까닭에 별다른 교통 수단이 없어서 외부인들은 물론 모든 선생님들도 '하발하발'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해야하는 학교입니다. 저 역시 이곳을 방문하려면 그 무시무시한(?) '하발하발'을 타고 산을 거슬러 올라 가야 하는데,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발라박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런데 더 이상 핑계를 댈수 없도록 금년 초에 하나님께서 좋은 차를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두 분의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하발하발'이 아닌 자동차를 타고 발라박 고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탕수수 밭과 망고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 평화스럽게 보이는 지역을 지나지만, 거친 도로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차가 흔들리는 가운데 가까스로 발라박 마을과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40여명의 어린이가 재학한다는 발라박 초등학교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교실등이 거의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 전체가 매우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초등학교 내에 뒤늦게 합류한 140여명의 고등학생들은 더욱 더 험악해 보이는 낡은 격실을 개조해서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방문한 까닭에 학생들은 만나 볼 수 없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안내와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들의 전통 카톨릭 회당이 학교 앞에 있고, 마을 중심에도 규모가 제법 큰 또 다른 카톨릭 회당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분위기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처에 작은 규모이지만 이슬람 마을이 있어서 이슬람권 학생들도 발라박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발라박 마을에는 아직 교회가 없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선교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또다른 땅끝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발라박 마을과 학교를 돌아보는 내내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보내셨을까?'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선교지 내에서도 특별히 여러 현지 학교들을 가까이 보게 함으로 이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이 '발라박 학교'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셔서 정복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선교지임을 깨닫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시 60:4)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금년에 예일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이 곳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선교팀이 한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이곳에 예일 교회 선교팀의 사역과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지의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기대하는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일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여 사역을 하게 될 곳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 동남쪽에 위치한 남 다바오 주의 행정 수도인 '디고스'라는 지역입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곳에는 현재 인구 약 21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모슬렘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통 카톨릭을 믿는 전형적인 필리핀 지방 도시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카톨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성경', '예배'등에는 익숙 하지만, '구원의 복음'은 아직 접하지 못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포함하여 약 10여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으며, 해외 선교사는 아직 파송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번 예일 교회의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아래와 같은 선교 사역이 진행 되기를 바랍니다.



1. 학원 사역

이 지역에는 4개의 공립 고등학교와 약 20여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디고스 고등학교 (1만명)가 있고, 그외 마띠 고등학교 (400명), 익핏 고등학교 (400명), 발라박 고등학교 (140명)가 있고, 근방에 솔롭 고등학교 (1,500명)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학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학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역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송되는 예일 교회 단기 선교팀의 인원 및 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위의 학교 중에서 제한된 시간내에 선교팀이 감당할 수 있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선별하여 학원 사역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즉, 사역의 중심 대상이 고등학생 (필리핀 고등학교 1~4학년 / 미국 학제로는 7~10학년)들이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부모와 선생님등의 성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익핏 고등학교와 발라박 고등학교는 자체 학교 건물이 없는 가운데 초등학교의 교실을 빌려쓰고 있는 형편인데, 함께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 (1~6 학년)들도 이번 사역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예일 교회 선교팀이 준비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학원 사역을 위하여 Salvation 사역과 더불어 VBS 형태의 Session/Module별 학생을 위한 사역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선교팀이 현지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학교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학년별, 반별로 학생들과 접촉하며 집중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들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VBS, 영화 상영, 현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짧은 성극, 찬양 (합창) 지도, 영어 성경 암송등이 교실별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시간별로 Rotation이 되어 전학생들이 다양하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일 교회의 도서 지원을 통하여 이곳의 낙후된 학교에 '도서실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마띠 고등학교에서 진행되어 가고있는 교실벽 공사와 더불어 협소하지만 도서실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곳의 열악한 학교에 꿈같은 도서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용했던 영어로 쓰여진 책들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 ~ 12 학년용)

2. 교회 건축 (보수) 사역

연약한 가운데 마띠 고등학교와 마띠 교도소 사역을 저희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마띠 교회의 예배당 보수가 절실합니다. 오래전 교회 설립 당시 예배당을 건립하는 중에 재정이 부족하여 반쪽만 지어진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지금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의 눈으로 볼 때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의자를 포함한 모든 내부 시설도 부족하기가 마찬가지로이지만, 적어도 예배당 자체 만큼은 나머지 반쪽도 완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마띠 교회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가능하면 이번 예일교회 선교팀의 노동력과 물질을 통하여 예배당의 나머지 반쪽도 완공이 되고, 깨끗하게 마무리 페인트 작업까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마띠 교회는 예일 교회가 베푼 큰 사랑을 오랜 시간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3. 교도소 사역

참으로 독특하게도, 마띠 교회와 마띠 교도소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마띠 교인들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많이 부족하지만 150여명의 재소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의 이곳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생활 환경은 물론이고 재소자들은 쌀밥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운 질이 낮은 밥에 조그마한 마른 생선 한조각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보수가 절실한 마띠 교회

저희가 교도소를 방문하면 재소자들로부터 밥에 찍어 먹을 '간장'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교도소 음식이 아닌 바깥 세상의 '라면'같은 것이라도 한번 먹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번 예일 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Salvation 사역 및 Gift 사역을 통하여 재소자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 측에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 끼만이라도 따뜻한 '식사'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4. 향후 사역 계획

이번 예일 교회의 선교팀의 방문을 통하여 위의 단기 선교 목표를 수행하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는 디고스 지역의 학원 선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의 사역은 길을 열어 주시는대로,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동분서주하는 사역이었다면, 앞으로는 디고스 지역의 학원 선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장기 목표를 가진 팀 사역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마도 예일 단기 선교팀의 방문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디고스 학원 선교 기관 조직
- 학원 사역을 위한 현지 교육 목회자 청빙 및 학교 순회 배치
- 각 학교별 후원을 위한 자매 결연 추진
- 기독 학생 그룹 조직
- 장학생 선정 및 우수 기독 학생 신학교 학업 지원
- 지역 교회 설립

제 개인적인 선교 모델은 100여년전에 조선 땅을 밟은 초대 선교사들의 발자취입니다. 초대 선교사들 감당한 사역들이 참으로 다양하지만, 특별히 '학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크게 보이는지, 이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더욱 더 실감하게 됩니다. 초대 선교사들의 '학원 선교'를 통해서 한 학생의 삶이 변화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가 살았던 주변, 사회, 나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손인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전폭적인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통해서, 또한 준비하시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디고스 지역 '학원 선교'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 40:9)



마띠 교도소 주방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4